

두산아트랩 공연 2025 ①

## 이무기 프로젝트

### <이태원 트랜스젠더-클럽 2F>

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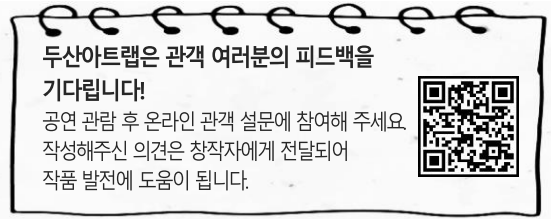
19(목)~1.11(토) 목금 7시 30분 / 토 3시

쇼케이스 90분

\*아티스트 토크 1.11(토) 공연 후

아티스트 토크는 두산아트센터 팟캐스트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www.podbang.com/dv/7508](http://www.podbang.com/dv/7508)



### 창작노트

“  
 딸로 태어나지 않았던 여자들이 이태원으로 모여들었다.  
 여자들은 밤에 함께 일했다. 카페, 바, 술집, 클럽 등에서 감정노동,  
 성노동, 예술노동, 돌봄노동을 통해 트랜스젠더를 사회 바깥으로  
 내모는 힘 속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장소를 만들어왔다.  
 여자들은 이태원에 게이힐이 생기기 전부터 이태원에 있었고,  
 트랜스젠더라는 단어가 한 사람의 성별정체성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기 전부터 존재했다. 여자들은 양공주, 양갈보, 양보갈, 술집여자,  
 여장남자, 게이, 호모, 젠더, 트랜스젠더, 퀴어 등으로 불렸다. 수많은  
 이름들이 여자들 이후에 등장했고, 여자들보다 먼저 희미해졌다.  
 ”

이무기 프로젝트(이태원은 무엇일까 기록하기 프로젝트)는 약 70년간의 역사가 담긴 이태원 트랜스젠더-성노동자 커뮤니티의 역사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다. 퀴어 예술가, 연구자, 성노동 운동가로 이루어진 팀으로, 이태원 업소에서 일하는 트랜스젠더의 삶을 기록하고자 한다.

이무기프로젝트  
 (김수영, 김일란, 문상훈, 성재운, 여름, 한솔)

### 공연 소개

“밝은 데서 불 밝히면 연예인이고

어두운 곳에 불 밝히고 있으면 기생인 거지”

“트랜스 인생은 별거 없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잘 지내”

“색자를 거기서 처음 본 게 이제 내 인생 이렇게 이제 조지게 만들어 냈지”

“여자로 살며 사랑도 받고, 일하는 게 즐거웠으니까”

누구도 트랜스젠더가 어떤 삶을 꿈꿀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없던 시절, 색자, 로즈마리, 미란, 미래는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다. 무대에 올라야만 트랜스젠더로서 삶을 꾸릴 수 있었다.  
 반 세기가 흐른 지금 이들은 스스로 묻는다. 무대에 힘입어 살아온 이 세월을 무대에 올린다면 어떤 공연이 탄생할까?  
 우리는 그곳을 파살롱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서로를 기생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지어줬고, 그 이름으로 무대에 올랐다. 이태원에서 시작해 대구로, 경주로, 부산으로, 나고야로, 우에노로 흘러갔다가 다시 이태원으로 모였다. 그 모든 세월이 “이태원 트랜스젠더-클럽 2F”의 지붕, 바닥, 무대, 기둥이 되었다.  
 로즈마리, 색자, 미란, 미래. 70년대부터 한국 트랜스젠더 공동체의 시작을 열었던 이들이 자신이 거처온 오래된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다원 <이태원 트랜스젠더-클럽 2F>**

기획 두산아트센터  
제작 이무기 프로젝트  
구술 로즈마리 색자 미란 미래 춘자  
출연 로즈마리 색자 미란 미래  
작 문상훈 한솔  
윤색 이유진  
연출 문상훈  
조연출 한솔  
프로젝트매니저 성재윤  
안무 서병구  
조명디자인 윤혜린  
사운드디자인 목소  
음향감독 박재식 우경민  
드라마터그 김수영 영이  
무대감독 이지혜  
자막 오퍼레이터 서주은  
영상 연출 김일란  
영상 촬영 노다해 김예지 한솔  
엔딩음악 가사 이반지하  
포스터 사진 성재윤  
사진 어시스턴트 김보람  
프로덕션 포스터 디자인 문상훈 한솔  
홍보 글 김수영 여름  
홍보 영상 한솔  
후원 연분홍치마

[두산아트랩 공연 2026 공모 안내]

일정 2025.5.7~2025.6.4

대상 40세 이하, 한국 국적 예술가,  
장르 제한 없음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산아트랩은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